금주의 법구–〈열반경〉
선각자는 지혜로운 의사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3일)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한마음선원은 10월 20일 안양본원서 '대행선사 동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 후 명예 원로의원 밀운 스님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빛으로 온 대행선사, 한마음도량 밝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대행선사 동상 봉립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평생을 매진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동상이 한마음 정진도량에 우뚝 섰다. 5천여 사부대중의 환희 속에 대행 선사는 원적 8년 만에 빛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20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동상 조성은 생전에 자신과 제자들마저 없을 때 대중의 의지처를 염려한 대행 선사가 남긴 유지에 따라 이뤄졌다. 무엇보다 미래 불자들의 지표가 되도록 돕기 위해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술적 가치 담아낸 동상

대행 선사 동상은 권대훈 서울대 조소과 교수가 2016년 3월 조성을 시작해 2019년 10월 완성했다. 주재료는 청동이며, 두 개의 돌 좌대가 겹쳐져 동상을 받치고 있다. 주물은 송창일 주조명장이 맡아 용접 없이 통으로 동상을 제작했다. 아래 좌대에는 연잎 모양의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연밥 모양의 좌대가 올려져 연화좌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좌대의 높이는 65㎝, 동상 높이는 2m85㎝ 이다.

동상 아래에는 심주관을 건립하고 중앙에 심주석(心柱石)을 세웠다. 심주석은 심주관 1, 2층을 관통해 동상을 받치는 기둥으로서, 심주관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다. 한마음선원에 따르면 이는 일체가 들고 나는 한마음의 근본자리에 우뚝 세워진 마음의 불기둥을 상징한다. 기둥 상단 구름은 하늘을, 하단 연꽃은 땅을 표현하고, 중앙에는 법륜이 돌아가는 형상을 구현했다.

심주석에는 대행 선사의 법어 중 '마음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 마음의 길을 인도해준다는 것은 진짜 보배를 찾아주는 것과 같다'를 새겼다.

동상을 장엄하는 화엄석은 7개 돌기둥으로, 동상 뒤에 탱화처럼 펼쳐져 있다. 가운데 5개는 한마음의 작용 원리인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의 이치를 드러내고, 양쪽 두 개의 돌기둥은 재가와 승단이 둘 아닌 더불어 수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화엄석은 석주조각원 김동철 명장이 조성했으며, 칠은 문화재기능인 김종민 황칠장이 1년여간 모은 황칠액으로 황칠과 옻칠, 생칠을 번갈아했다.

각계 축하인사 잇달아

이날 행사는 한마음선원 5층 법당의식으로 시작됐다. 동상 불사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은 동상 봉립을 통해 스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가르침을 새겨 하심하는 계기로 삼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성우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이나 자비행을 본다면 동상은 전국 인연 있는 곳에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에 봉립된 대행선사 동상.

대행 선사 원적 8년째 맞아
평생 대중 의지처 염려해온
선사 유지로 3년간 동상 제작
권대훈 서울대 교수 디자인
송창일 · 김종민 명장 등 참여

5000여 사부대중 함께 축하
수행정신 · 포교원력 되새겨

이어 야외서 진행된 동상 제막식에서 대행 선사의 동상이 드러나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다. 중생교화에 앞장선 자비로운 인상과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던 진지한 모습을 담아낸 대행 선사의 동상에 각계 주요 인사들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명예원로의원 밀운 스님은 "한마음선원 대중은 대행 스님 동상을 예경할 때 예경만 하지 말고, 법문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일면 스님은 "몸이 아플 때 해주신 '육신이 나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고(苦)이지만,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새기며 살고 있다"고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밝히며 동상 봉립을 축하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대행 스님의 자애롭고 혁신적인 포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넘어 법형제까지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고 선사의 포교원력을 기렸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모두가 대행 스님의 면모를 되새겨 수행정신과 포교원력을 함께하는 불자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대행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비구니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대중은 진실한 불교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선원 대중 "마음공부 더 정진"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동상 제막에 맞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굳은 서원으로 정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에서는 청년회가 돈을 모아 왕복 50시간의 비행을 거쳐 제막식에 참석해 감동을 전했다.

박종수 안양본원 신도회장은 국내외 지원 신도회를 대표해 "마음공부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간절하게 관하는 정진 속에서 세세생생 스님을 만나겠다. 앞으로도 늘 저희들과 함께해주시길 발원 올린다"고 봉헌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은 선원 대중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다. 스님 눈길 한 번, 한 말씀에 모든 대중이 마음을 녹이며 살아 왔다"며 "앞으로도 큰 스님을 뵈면서 가르침대로 화합하며 살아가겠다. 또 주변 어른 스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동상 제막식에는 명예원로의원 밀운 · 혜승 스님, 원로의원 일면 · 원행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한국명상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 조계종 제4교구본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前총장 보광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한마음선원 전국 · 해외 지원장, 이종걸 · 유민봉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 유튜브 부족
외연 확장 필요

유권준 팀장, 포교연찬회서

'키즈 시장 40조원 돌파' 등 뉴미디어 도래로 사회 각 분야 시장의 성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교 뉴미디어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24일 진행한 제79차 포교종책연찬회 '포교의 새로운 활로, 유튜브 포교'서는 유권준 BBS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장이 불교 유튜브 시장의 협소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연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연찬회서 '한국불교의 뉴미디어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유권준 팀장은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팀장은 외연 확대에 대한 종단 차원 접근 방

불교콘텐츠 총 구독 186만명
법륜 스님 채널 빼면 77만명
시장 부족, 수익 23억원 미만
"콘텐츠 진흥 기금 운영 확대"

안으로 △문화재관람료 1% 불교콘텐츠 진흥기금 활용 △불교 콘텐츠 공공 아카이브 구축 △불교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구축 △유튜브 아카데미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포교사 양성 및 활용 △청소년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 △중장기 불교 스토리뱅크 사업 진행 등을 제안했다.

유 팀장은 "결국 유튜브는 개방과 참여, 자율과 창작이라는 근본 작동원리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불교 유튜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자율보장 등이 이어져야 한다. 시장확대를 통해 불법홍포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강산 씨와 도연 스님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강산 씨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영상을 좋아하지만 종교콘텐츠인 만큼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묘공당 대행선사 동상 봉립 법회 회향 인사



은사 스님의 깊고 간절한 중생 구제의 원력과 가르침이 후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마음 근본을 밝히는 공부가 끊어짐이 없기를 발원하며 봉행되었던 동상 제막 법회에 참석해주신 제방의 비구 비구니 대덕 큰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사부대중들은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합장